

한국3엠, 접착테이프 6공장 준공

150억원 투자해 나주공장 준공 ... 150여명 직·간접적 고용창출

한국쓰리엠은 8월25일 전남 나주에서 제6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들어간다고 8월23일 밝혔다.

전기와 전자, 통신 부품용 양면 접착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제6공장은 부지 9500여㎡에 건축면적 4400여㎡로 150억원이 투입됐으며 1년여 공사 끝에 준공됐다.

한국쓰리엠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적 파급 효과 등이 큰 이른바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제품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한국쓰리엠은 6공장 준공으로 15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에는 제7공장을 착공하는 등 추가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다.

1990년부터 가동된 한국쓰리엠 나주공장은 58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LCD와 생활용품 등을 생산해 약 7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8월25일 준공식에는 3M 아시아지역 부사장인 존 우드워스와 한국쓰리엠 마이클 로만 사장, 신정훈 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쓰리엠은 양면 테이프 등의 제품 성격과 외국 경쟁기업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 생산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3>